

---

#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

## - 인문사회계열Ⅱ 문제지 -

| 대학 | 학과(학부) | 수험 번호 | 성명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 [인문사회계열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정말 좋으련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년은 지금 자네 곁에 없잖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자네 혼자뿐이니 어둡건 말건 아무튼 마지막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끊어 버리고 예비 줄 두 개를 연결해 두는 게 좋겠어. 그래서 노인은 그렇게 했다. 어둠 속이라 일하기 어려웠고, 한번은 고기 놈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져 얼굴 아래가 찢어졌다. 그는 간신히 이물\* 쪽으로 돌아가 판자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그리고 어깨의 힘으로 줄을 고정하면서 고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주의 깊게 가늠해 보고 나서 한 손을 물에 담가 나아가는 조각배의 속도를 헤아려 보았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낚싯줄이 물속으로 풀려 내려갔다. 조각배는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아침 해가 수평선 위에 첫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의 오른쪽 어깨에 햇살이 비쳤다. 그때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북쪽에서 조각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새는 수면 가까이 아주 나지막하게 날고 있었다. 노인은 새가 몹시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는 배의 고물\*에 가서 지친 날개를 쉬었다. 그리고 노인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낚싯줄 위에 가서 앉았다. “너 몇 살이냐? 이번 여행이 첫 나들이인 거야?”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노인이 말을 걸자 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새는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제대로 낚싯줄을 살펴볼 겨를도 없어 보였다. 가냘픈 발가락으로 낚싯줄을 꼭 움켜잡고 있는 동안 아래위로 흔들거렸다.

“줄은 튼튼해. 아주 단단하다고. 간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되겠니.” 노인이 새에게 말했다. “새들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저 새들을 노리고 바다까지 날아오는 매들이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실컷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가 말했다. 밤 동안에 등이 뻐뻐했고 지금은 심한 통증까지 있었는데, 새에게 말을 걸고 나니 노인은 힘이 솟았다.

바로 그때 고기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은 이물 쪽으로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 갑자기 낚싯줄이 당겨지는 바람에 새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만, 노인은 새가 날아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새와 벗 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은 그제야 사방을 둘러보면서 새를 찾았다. 그러나 새는 온데간데없었다. 오래 쉬지도 못하고 그만 가 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물: 배의 앞부분.

\*고물: 배의 뒷부분.

(나)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통재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쌍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쌍쌍이 날날이 나눠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영구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나의 신세 박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흥완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하니, 오호통재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절을 듣는 듯한지라.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오호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을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수응<sup>\*</sup>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밥 먹을 적 만져 보고 잠잘 적 만져 보아, 널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 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글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솔솔이 불여 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이 생애 백 년 동거하렸더니, 오호애재라, 바늘이여.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자끈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워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유세차: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중요롭다: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동지상사: 조선 시대에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의 우두머리.

\*수응: 요구에 응함.

**(다)** 이 몸이 생겨날 때 입을 따라 생겼으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입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는가.

옛그제 입을 모셔 광한전<sup>\*</sup>에 올랐는데

그사이에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일세.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입이신가 아니신가.

원앙금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 내어

금자로 재어서 입의 옷을 지어 내니

숨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임에게 보내려고 입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을 뉘라서 찾아갈까.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동산에 달 오르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임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생각 말아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뺏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sup>\*</sup>이 열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입의 탓이로다.

\*광한전: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각.

\*편작: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명의.

(라)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외에서 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느끼는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기임을 알게 된다. 수술 후 인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다.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인희,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멧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정철:**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걸. 심심하네.

**인희:** 여보, 나 소원 있어.

**정철:** 뭐?

**인희:** 나 무덤 만들어 줘.

**정철:** 언제는 답답해서 싫다고 화장해 달라며?

**인희:**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 들은 그러지 말라고.

**정철:** .....

**인희:**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정철:** (인희를 본다.)

**인희:**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를 돌리며) 싫어.

**인희:**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인희:** 언제? 어느 때?

**정철:** 다.

**인희:**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인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다.) 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가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인희:**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괜한 옷깃만 만지고 두리번거리며)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른다.)

**정철:** (인희를 안고, 눈물 흘린다.)

**인희:**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인희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 준다.) 고마웠다.

(마)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 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 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

에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언만,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또 혼상,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김은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또한, 집 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 때 리기로만 일을 삼으므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는 이가 또한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입니다. 관민 간에도 그러합니다. 리에, 면에, 군에, 도에 가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입니다. 우리네의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판이 납니다.

이제 한 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합니다. 학교뿐 아니라 선차\*에도, 집회에도 화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조 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 겠습니다. 그러한 뒤에야 참삶의 맛을 알겠습니다.

\*정의: 서로 가깝게 지내어 친하여진 정.

\*화기: 화목한 기운.

\*천부: 하늘이 줌. 또는 태어날 때부터 지님.

\*완희물: 장난하며 희롱하는 대상.

\*선차: 배와 수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의미함.

**(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서는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항상 존재한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구성원 간에 합리성을 공유해야 한다.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버마스는 이러한 합리성을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적 이성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를 향상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대화와 토론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사소통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면 참여자들은 스스로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한 사항을 지키게 된다. 이와 같은 화해와 자율 정신은 현실 사회를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대화와 토론, 즉 의사소통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므로 사회 구성원의 의사소통 행위는 윤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왜곡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윤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화에 참여한다고 말하지만, 권력과 돈의 위력 등 외부의 압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이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아가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왜곡된 담화는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갈등의 심화와 분쟁을 초래한다.

**(사)** 과거 서양의 사상가들은 전통적으로 도덕의 문제를 정념과 이성 간의 싸움으로 설정하였고, 이 싸움에서 이성이 승리하는 것이 곧 선이요 덕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성에 의한 정념의 지배'는 오랫동안 서양 윤리학의 공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흄에 따르면 이성은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성의 능력인 지성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성은 바람직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감정만이 의지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만든다. 따라서 도덕적 활동은 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부인(否認)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은 개인들 각자의 주관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감정들이다. 흄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인류 전체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갖도록 만든다. 흄은 이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그(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자)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떠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안의 보편적 원리를 움직여, 모든 인간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

**(아)**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죄형 법정주의는 강력한 권력 수단인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이 된다. 한편,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만 있으면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확립되었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하고 적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이와 같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의미한다.

**(자)** 정보화로 시공간적 제약이 극복되고 실시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누리 소통망(SNS)이 확산되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원격 진료,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전자 행정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편리해졌다. 한편 개인 및 국가 간 정보 격차가 소득 및 국가의 빈부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보의 소유와 활용 능력에 따른 사회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고 사이버 범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정을 주는 이유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가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고, 제시문 (마)의 '다정한 사회'가 이루어진 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자)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제시문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고, 제시문 (아)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조건을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